'止觀'은 어떻게 수행해야 하나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기신론이 제시하는 수행문 오문(五門) 가운데 지관문의 설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지(止)와 관(觀)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지(止)는 일체 경계를 그쳐 쉬는 것이다. 사마타관(奢摩他觀)을 따르는 것이다. 관(觀)은 인연생멸상(因緣生滅相)을 분별하는 것이다. 비발사나관(毘鉢舍那觀)을 따르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점점 닦아 익혀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하면 둘 다 함께 나타나게 된다."

마음의 산란함을 막고 맑고 고요함에 안주하는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계를 쉬어야 한다. 경계를 쉰다는 것은 객관경계를 두고 그릇된 대상의 설정을 멈춘다는 의미이다. 범어 'samatha'를 번역하여 지(止)라 한다. 바람이 그치면 파도가 멈추는 것처럼 경계의 반연이 끊어지는 것이 사마타다.

관(觀)이란 인연으로 생멸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라 했는데 일체 사물에 대한 고요한 관찰이다. 번뇌를 야기하는 바깥 경계의 모든 대상은 결국 분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므로 지혜로써 그와 같은 바깥 경계의 다양한 번뇌의 모습들을 소멸해버리면 번뇌의 모습들이 없어지고 분별하는 대상이 없어지게 된다. 곧 무분별이 되므로 지(止)라 하는 것이며, 생멸문에 의해서 사물의

경계를 떠나 그릇됨을 끊고
번뇌 소멸해 분별심 없애야

모습들을 관찰하므로 분별생멸상이라 하여 이를 관(觀)이라고 한다 했다. 범어인 'vipasyana'를 비발사나(毘鉢舍那)로 음사해 표기했는데 이것은 생멸문 쪽에서 후득지(後得智)를 얻어내는 것이다.

이 지관의 설명이 진여문과 생멸문의 두 문에서 지(止)는 진여문에서 이루어지고 관(觀)은 생멸문에서 이루어짐을 밝히고 있다. 진여문에서 모든 경계의 상을 그쳐 분별하는 바가 없는 무분별지(無分別智)가 이루어진다. 흔히 말하는 진로(塵勞)의 경계는 분별을 말미암아 있게 된 것이다. 진로를 분쇄해버리기 위해서는 분별이 멈추어야 한다.

원효는 소(疏)에서 〈유가론〉의 말을 인용 지(止)와 관(觀)을 설명한다.

"외계의 사물은 모두 번뇌의 대상이 된다. 그것은 분별을 말미암기 때문이다. 번뇌를 야기하는 외계의 상태를 없애기 위해서는 분별의 없는 무분별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분별이 없는 상태를 지(止)라 하는 것이다. 보살들은 제법에 있어서 분별하는 바가 없다. 이것이 지(止)인 줄 알아야 한다. 또 이 세상 모든 사물이 지니는 본질적인 의미, 무한히 깊은 이치에 대한 세속적인 뛰어난 지혜를 관(觀)이라 하는 것도 알아야 한다."

원효의 해동소에서는 기신론 본문의 지관(止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가한다.

"사마타를 번역해 지(止)라 하고 비파사나를 번역해 관(觀)이라 했으나 이는 기신론의 번역자가 지와 관을, 전자는 특수한 방편의 뜻을 나타내고 관은 정관(正觀)으로 본 까닭에 정관에 사마타 비파사나의 뜻을 같이 붙인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말이 같이 붙은 것을 그대로 번역한다면 하나는 지관(止觀) 하나는 관관(觀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지와 관이 본질적으로는 둘이 아닌 하나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원효는 이어서 말하기를 "상황에 따라서, 곧 나타난 성격상으로 말하면 선정(禪定)을 지(止)라 하고 반야(般若)를 관(觀)이라 하는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말하면 정(定)이나 혜(慧)가 다 지관(止觀)에 통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지관의 수행법을 후대 선수행법이 발달되고는 정혜(定慧)라는 말로 대체되었다. 기신론에서 지관을 같이 닦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후대에 말한 정혜쌍수라는 의미와 같은 것이다.

원효는 지관의 기술적인 면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서 〈유가론〉 '성문지(聲聞地)'에 나오는 아홉 가지 심주(心住)와 네 가지 비파사나를 들어 기신론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심주(心住)란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 산란하지 않은 마음을 말한다. 지(止), 곧 선정을 방해하는 것을 선수행에서 혼침(昏沈)과 산란(散亂)이라 말해 왔듯이 기신론에서 말하는 지관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란을 벗어나야 하는데 이 방편을 구주(九住) 사관(四觀)을 인용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승불교는 곧 '보살이 되는 삶'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㉙ 보시바라밀이 만족됐을 때는

檀波羅蜜滿足之時知功德滿足。ㄷ 貪者見乞者時則背其面。修功德者見乞者時歡喜瞻視親近。乞者則得。菩薩施時見受施者展轉相施便生歡喜。一切眾生讚歎歡喜。菩薩聞其讚歎心大歡悅勝得解脫之樂。菩薩悲心施時。見一切眾生多得財寶充足快樂。諸眾生等得快樂已。而發願言。我當久處生死修諸功德不求解脫。菩薩ㅡ 見眾生能久處生死心大歡喜。我今便為得現果報。設當不得菩提亦為具足。(단바라밀만족지시지공덕만족。간탐자견걸자시즉배기면。수공덕자견걸자시환희첨시친근。걸자즉득。보살시시견수시자전전상시변생환희。일체중생찬탄환희。보살문기찬탄심대환열승득해탈지락。보살비심시시。견일체중생 다득재보충족쾌락。제중생등득쾌락이。이발원언° 아당구처생사수제공덕불구해탈。보살기견중생능구처생사심대환희。아금변위득현과보。설당부득보리역위구족。)

번역

보시바라밀이 만족하게 됐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공덕도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색하고 탐하는 이는 구걸하는 이를 봤을 때 곧 그 얼굴을 돌리지만, 공덕을 닦은 이는 구걸하는 이를 봤을 때 기뻐하며 친근하게 바라보나니, 구걸하는 이가 곧 얻게 됩니다. 보살이 보시할 때 보시를 받는 이를 보면 더더욱 상대에게 베풀고 문득 기쁨을 일으키나니, 일체 중생들이 찬탄하며 기뻐합니다. 보살이 그 찬탄하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크게 기쁜데 해탈의 즐거움보다 뛰어납니다. 보살이 자비심으로 보시할 때, 일체 중생이 많은 재물을 얻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생들이 동등하게 즐거움을 얻도록 서원하기를, "내가 응당 오랫동안 생사 가운데 있으면서 모든 공덕을 닦되 해탈을 구하지 않으리라" 합니다. 보살은 기왕에 중생들과 능히 오랫동안 생사 가운데 있으면서 마음에 큰 기쁨을 보이나니, "내가 지금 문득 현실에서 과보를 얻고, 설사 보리를 얻지 못할지라도 역시 공덕을 만족하게 갖추리라" 고 합니다.

해설

이 부분은 시주걸자증장품제4(施主乞者增長品第四)의 마지막 부분이다. 지금까지 보시하는 이와 구걸하는 이에게 증장되는 것에 대한 설명의 결론 부분이다. 제바라보살은 보시하는 이는 보시를 통해 복덕과 지혜가 증장되며, 구걸하는 이 역시 보시하는 이를 통해 기쁨을 얻고, 보살을 보면서 스스로 보살행을 서원하게 된다고 일러주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살은 진정한 보살행을 위해서 해탈마저 던져버린다. 해탈은 해탈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을 천명한 것이다. 여기서의 공덕은 단지 현실의 보답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즐거움을 얻게 되는 공덕이다.

석가모니불의 500가지 대원력과 아미타불의 48가지 원력이 바로 부처님을 부처님이게 했다. 관세음보살의 16서원과 33응신, 보현보살의 10종대원, 지장보살의 "지옥에 빠진 모든 중생이 구원될 때까지 열반하지 않겠다"는 서원이 있어 진정 보살일 수가 있었다.

따라서 "깨닫지 못해도 좋다", "오로지 보살행이면 족하다"라는 보살의 서원은 중생을 위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수행하는 대승의 삶이다.

대승불교는 성불(成佛)이 아니라 성보살(成菩薩)의 삶임을 강조한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四法印과 常樂我淨

한국불교에서는 삼법인(三法印)을 우선시 한다. 삼법인의 설명 끝부분에 덤으로 얹어 사법인(四法印)도 있다는 정도로 끝마무리하는 경우가 흔하다.

삼법인의 순서에도 교과서처럼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 일체개고(一切皆苦)로 굳어져 있다. 그러나 티베트 불교에서는 사법인(四法印)으로 가르친다. 설명 순서에 있어서도 제행무상, 일체개고, 제법무아, 열반적정(涅槃寂靜)이다. 이는 사성제(四聖諦)의 고(苦)·집(集)·멸(滅)·도(道)처럼 관찰과 인식, 원인과 분석, 소멸을 위한 정진수행, 행복과 자유에 이르는 팔정도의 실천으로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 신앙의 생명력은 긍정을 위한 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현상계의 괴로움의 원인을 직시하고 인식해 타력(他力)이든 자력(自力)이든 행복과 자유에 이르는 완성의 마침표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신앙의 생명력, '긍정 위한 부정'서 출발
韓불교, 삼법인 아닌 사법인으로 가르쳐야

그러나 한국불교처럼 삼법인(三法印)만을 가르친다면 허무의 그림자만 배워 인식할 뿐 긍정을 위한 부정의 논리를 비껴갈 수 도 있을 터이다. 순서에 있어서도 모든 것은 덧없어(諸行無常) 일체는 괴롭다(一切皆苦). 실체가 없는 나(我)를 벗어나(諸法無我) 텅 빈 충만의 고요를 즐긴다(涅槃寂靜)로 설명함이 옳은 것이다.

다음으로 언급할 부분은 한국불교계에서 떠돌아다니는 윤회(輪廻)를 벗어나 해탈(解脫)하라는 덕담(德談)에 대해서다. 마구간에 뒹굴어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좋다는 말이 있는데 윤회를 벗어나면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누리며 무슨 존재이길 바라는 것인지 설명이 모조리 생략돼 있다.

해탈의 내용과 해탈자의 세계에 대해서도 설명부족을 남긴 채 윤회를 벗어난 형이상학으로 자족(自足)하는 허물을 남기고 있다.

사바세계의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세계의 복락을 누린다는 이분법적인 단출한 설명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낳고 죽는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 도대체 어디에서 무슨 존재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것인지 의문부호는 날로 그 둘레를 넓혀가지 않을 수 없을 터이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열반경〉에서 찾을 수 있다. 깨달음을 성취한 진리와 한 몸을 이룬 자들은 열반의 사덕인 상(常)·락(樂)·아(我)·정(靜)을 누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열반경〉에는 열반의 사덕(四德)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하여, 불교학자와 교수, 스님들의 상(常)·락(樂)·아(我)·정(靜)에 대한 설명에 있어 그 무게와 색깔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인(四法印)에서 법(法)은 진리라는 의미이다. 인(印)은 도장까지 찍어 4가지 변할 수 없는 진리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지극히 옳은 가르침이다.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닌 한 몸이지만 중생지견(衆生知見)과 해탈지견(解脫知見)은 천지개벽하듯 그 앎(知)과 봄(見)이 다른 것이다. 열반의 사덕(四德)은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살아서 누리는 것이다.

불교의 중도(中道)를 설명할 때에도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양변불락(兩 ≪不落)의 중심잡기 위한 '가운데 중(中)'이 아니라 이르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요 발길 닿는 곳이 정토(淨土)라는 양변무애(兩 ≪無碍)이자 무변중심(無 ≪中心)의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중(中)'으로 설명함이 옳은 것이다. 임제의 수처작주(隨處作主)나 마조의 즉심시불(卽心是佛), 혜능의 당생정토(當生淨土)와 하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열반의 사덕(四德) 또한 사후 윤회를 거절하고 육조단경에서 혜능이 펼쳐 보이는 현생의 극락을 누리는 것이다. 중생일 때는 사법인(四法印)이었으나 깨달음을 이룬 뒤에는 상(常)·락(樂)·아(我)·정(靜)이 되는 것이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이 제행유상(諸行有常)이요. 일체개고(一切皆苦)가 일체개락(一切皆樂)이 되는 것이다. 제법무아(諸法無我)가 제법유아(諸法有我)요. 열반적정(涅槃寂靜)이 그대로 정토청정(淨土淸靜)이 되는 것이다. 발길 닿는 곳이 정토(淨土)요, 마음이 곧 부처이기 때문이다. 살피고 또 살필진저.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대북


2자


태징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전용 스피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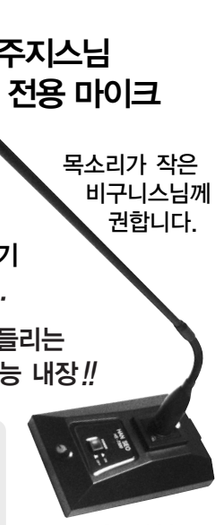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